

맑고 · 바르고 · 아름다운 原子力



田中 靖政

〈日本學習院大學 法學部 教授〉

에너지수요는 향후에도 착실히 계속 신장하겠지만, 실제의 신장은 예측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수요의 신장을 상쇄하는 외력이 작용함을 의미한다.

첫째, 1973년의 오일쇼크 이래 정부의 쉘에너지정책이 이제 겨우 제자리를 잡았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대량소비야말로 문명의 척도라는 가치관이 절약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전제품을 보고 알 수 있듯이 대형화나 복수 소유와 병행해서 쉘에너지화가 추진되고 있다. 쉘에너지화의 노력을 하는 만큼 실제의 소비는 신장하지 않고 있다. 더욱 일본에서는 전기와 휘발유가 외국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대량 소비자층, 특히 주부 등에 대해 절약의 誘因이 강하게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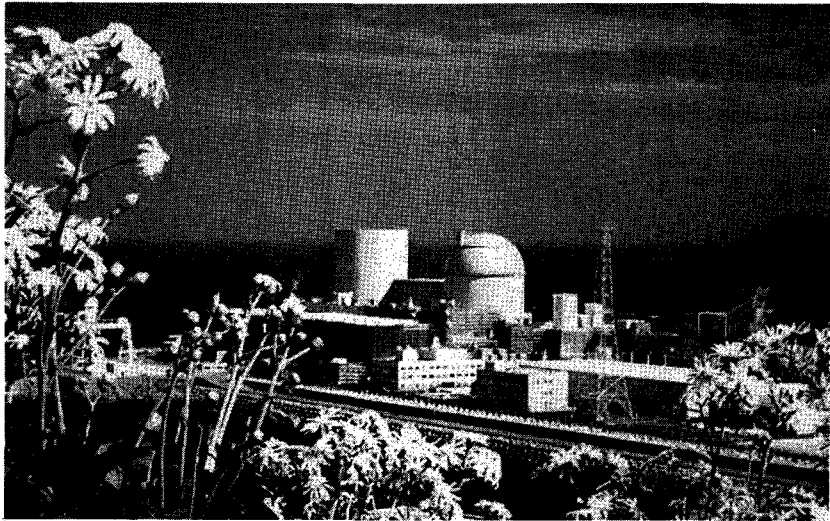
그렇지만 에너지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부도, 산업도 국민의 생활 향상 페이스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증산과 절약이 모두 불가결한 것을 국민에 대해 계속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原子力의 美學을

8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 재이용이 가능한 원자력은 중요한 에너지이다. 특히, 최근에는 우라늄가격이 내려 수급면에서도 안정되고 있어 원자력에 유리한 조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체르노빌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의문시되었고, 일본에서도 1988년 봄경부터 국민의 의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또 한번 체르노빌정도의 대사고가 일어나면 원자력의 운명은 끝나게 될 것이다.

원자력 추진측은 먼저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적에 의해 회복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맑고 바르고 아름다운 원자력의 이미지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맑고, 바르고, 아름다운」 원자력이란 대다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원자력을 말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은폐와 기만, 또는 급전으로 매수하려 하는 교섭방법은 오히려



▶ 日本 伊方原電 전경

「탁하며, 악하고, 추한」 원자력의 이미지를 강하게 만든다.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과 대화를 중심으로 국민 대다수가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원자력의 「美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최근에 원자력의 사고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만들어졌다. 매스컴을 매체로 국민이 사고에 대해 알 때, 우선은 기준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척도의 눈금의 수자를 구체적으로 바꿔 놓아 일반인들이 감성적으로 「무섭다」, 「무섭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원자력발전소는 전세계 26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밖의 나라, 특히 제3세계의 나라에서도 각국의 공업화 진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수요는 향후 더욱 신장해 갈 것이 예상된다. 이미 NIES(신흥공업국지역)에서는 극히 소수의 선진공업제국이 세계석유의 상당량을 소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3세계의 미래 발전을 방해하는 선진공업제국의 에너지 사용법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가까운 장래에 중국도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고, 인도네시아도 199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제3세계의 에너지 필요성도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脫原電後の 이미지

1989년 가을에 東京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반수가 태양에너지를 바람직한 에너지로 생각하고 있어 태양에너지가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에서는 원자력이 장래에 유망한 에너지의 톱으로 되어 있다. 원자력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탈원전후의 사회를 현실적으로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한편으로는 원자력에 방사선의 불안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석유를 대량으로 계속 연소함으로써 지구규모의 온실효과와 산성비의 불안이 있다. 어느 쪽이 우리 자손의 행복에 대해 보다 큰 위협일까? 간단하게 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일본은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제2의 석유연소국이라 지구전체의 정화에도 책임이 있다. 또 원자력·석유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국민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전의 오일쇼크를 아는 만큼 매우 의문이다.

단순히 원자력을 나쁜 것으로 돌리기 전에 탈원자력, 탈석유후의 사회를 이것 저것 상상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자손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첫단계일 것으로 생각한다.